
ASAN
FRONTIER
ACADEMY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1기 수기집

CONTENTS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소개	3
수료생 수기	6
Photo Essay	38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소개

Vision

대한민국의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의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Purpose

리더십, 혁신적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전문가 육성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기 발자취



2013. 9. 14. 면접 전형



2013. 9. 26. ~ 9. 28. 오리엔테이션 워크샵



2013. 10. 2. 입학식



2013. 10. 2. ~ 2014. 2. 15. 교육과정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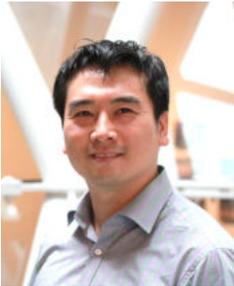


2014. 2. 16. ~ 3. 10. 해외방문연구조사(기간내 ~2주일)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 수기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얻다

강병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임

기회를 얻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본부장님을 모신 덕분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할 수 있었다. 내가 선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었는데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었고 덕분에 노인일자리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만나 생각의 범위가 넓어졌고 1기 동기생이 속해있는 조직인 월드휴먼브리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아름다운가게,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사람을 얻다

관심사가 전혀 다른 6개 기관 선생님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캡스톤 프로젝트 과정 자체가 도전이었다. 6명 모두 의욕이 넘쳐 논의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남기는데 동의는 했으나 주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보여 주는 영상을 남기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대신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기관 선생님들과 조별 활동을 통해 많은 동기 선생님들과 관심사를 공유하여 교육과정 이후에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다.

견문을 넓히다

미국 NPO 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NPO 저임금 문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기관의 시스템에 따라 파생하는 임팩트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다양한 자료를 두고도 언어문제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해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였다. 기관업무 특성상 외국어 활용빈도가 낮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 방문 이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7일째, 이제 시차적응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하여 새로운 사업을 기획 중이다. 당초 커리어 목표 중 하나가 5년 이내 전국사업 기획 및 추진이었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것 같다. 올해 유한킴벌리와 공동으로 전국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전략 모듈을 담당 하신 교수님도 해당사업 자문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연계영역 동기들도 사업 참여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한 아산나눔재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의 10년, 다시 뿔 수 있는 힘을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강성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조정실 과장

일본에는 ‘정경숙’이라는 기숙형 교육기관이 있다. 이 곳은 사업가로 성공한 마쓰시타 코노스케(파나소닉의 창업자) 회장이 차세대 국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사비 70억엔을 들여서 세운 곳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매월 20만엔의 연수자금이 지급되며,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곳을 거쳐 간 인물 중엔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업 경영자, 대학교수, 언론관계자 등 일본사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며 전 일본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도 이곳 출신이다. 나는 일본의 정경숙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산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이 비영리 분야의 리더를 키우는 ‘한국의 정경숙’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2014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지만 13년이고 현재 기관에선 10년이 되는 해 이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아서 여태까지 앞만 보고 일을 해왔다. 어떻게 일을 할까 고민하기 보다는 무조건 열심히 만 했던 거 같다.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해 냈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도 있다.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조부모가정 아동에게 푸드뱅크로 들어온 도넛을 열심히 가져다 주었다. 아이는 과비만으로 아마 친구들한테도 놀림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아이에게 무조건 주면 좋은 줄 알고 그 기름진 도넛을 참으로 열심히 가져다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일이 아닌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참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아니, 참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참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매 강좌 때마다 직면하게 되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알게 된 좋은 지식과 열정적인 동료들을 만나 서로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리더십 훈련을 통해 난 대상자분들께 정말로 좋은 사회복지사 였지만, 동료들께 상처를 주는 참 부족한 직장 선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코칭을 받았으며, 팀의 역동성을 경험 하면서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평생 만나기 힘든 좋은 선생님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만나 뵈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새로운 10년을 뿔 수 있게 만든 에너지다.’ 그것도 더욱 혁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주위를 바라볼 줄 알고, 동료를 세워주는 사회혁신가로 변화된 10년을 뿔 것이다.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함께 뿔 동료 혁신가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동기생이 있어 더욱 행복하고 가슴 벅찬다.

아산 프론티어를 가지고 6행시를 지어 보고자 한다.

아: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 산을 넘으면서도 쉬지도 않고, 주변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프: 프론티어 1기 과정에 들어 온 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론: 론온리더(loan on leader)가 되어야 한다. 리더십을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 한다.

티: 티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한다.

어: 어린 시절 작고 순수한 꿈을 향해 다시 전진 갑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쉽과 열정,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

고영운

프렌드아시아 대외협력팀장

처음엔 아주 단순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세상’으로 뛰어 들었는데 어느새 6개월간의 기나긴 여정이 벌써 이렇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내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교육시간들은 쉽 열정, 즐거움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고, 덧붙여 이 거친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값지고 또 값진 시간들이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진홍 이사장님의 따뜻하고 깊은 뜻을 가진 말씀은 소진될 대로 소진된 나의 탁한 영혼에 작은 불꽃으로 열정을 지펴주셨고,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은 ‘리더십 모듈’ 수업은 내 안의 깊은 내면을 끄집어내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비영리 단체가 가장 부족한 경영 전략과 Skill을 배울 수 있었던 ‘전략 모듈’을 통해 내가 속한 단체의 운영전략을 되짚어보고 세부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경영학과 교수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이 따뜻하고 情 많은 김태영 교수님께 배울 수 있어 행복했다. ^^)

개인적으로 비영리 단체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그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인적자원 모듈’ 수업을 통해 조직 내 구성원의 특성 파악의 중요성과 그 특성에 맞는 역할분담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진다면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새롭지는 않지만, 새로운 교훈을 남겨주었다.

태화복지재단 유영덕 총장님의 족집게 같은 ‘재무·회계 모듈’ 강의는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회계의 궁극점을 날려버리게 했고 앞으로 비영리단체의 회계 방향과 가정경제에서도 활용 가능한 회계의 길을 넓혀주었으며, ‘마케팅 모듈’ 수업을 통해 단순한 홍보수단과 방법에 머물러 있던 홍보전략에 대해 홍보기사를 게시하는 기자의 시선과 관점을 통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로서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 어떠한 다양한 시선과 시도가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회혁신 모듈’을 통해 볼 수 있었고, 우리 안에 조금 더 신선하고 획기적인 시선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각 모듈 교수님, 운영원님들, 이승복 팀장님과 강해진 매니저님을 비롯한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뒤에서 항상 함께 수업에 참여하신 정다현매니저님, 최지훈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 텐텐클럽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6개월의 과정이 따뜻했고, 든든했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쭉~욱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

아! 산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강물처럼 이어지기를...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사무국장



2013년 9월 26일, 2박3일간의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을 시작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로서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이 나의 생각을 되새기고 성숙한 자아로, 책임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일상과 단절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는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은 정말 감명 깊었고 정말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매주 한 번, 많게는 세 번, 꼬박 4시간 이상의 시간을 내어야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컸지만,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마음먹고 부득이한 상황 외에는 항상 1순위에 두고자 노력했을 만큼 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매력적인 요인이 많았다.

면접 때 교수님께 단체의 역사나 활동가의 나이와 경력이 혁신의 저해(?)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혁신이야말로 우리 단체의 핵심 키워드라고 큰소리 뽐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목마른 분야였다.

첫 번째 모듈이었던 리더십 수업시간에 스스럼없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할 방법을 찾고, 혼자 가기보다 함께 가기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서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본적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정신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 전략 모듈을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전략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도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 인적자원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은 우리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여전히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혁신의 사례들도 큰 도전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익숙했지만 새로운 정보를 관심 있게 챙겨본 재무·회계 모듈과 모금·마케팅 모듈도 유익했다. 무엇보다도 “캡스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생소한 방식의 강의였고, 우리 같이 자칭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식이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도전했다. 성향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 사람들과 팀이 되어 무엇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 과정에서 ‘일’과 ‘사람’의 다이 나미한 역동을 살펴보게 한 캡스톤 프로젝트. 주어진 토의시간만으로는 부족해 카페 문이 닫힐 때까지 나머지 공부를 하며 열변을 토하곤 했지만,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늘 부족했다. 결과에는 아쉬움이 많지만 해외연수까지 이어진 그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을 듯하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획기적이고 참신한 주제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관심과 열정, 수준 높은 강의로 감명을 주신 교수님들, 문자폭탄, 메일폭탄, 사진폭탄으로 ‘챙김 당함’의 황홀함을 경험하게 해준 스태프들, 무엇보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전 과정을 함께한 30명의 동기들. 앞으로 우리들이 엮어나갈 무한대의 네트워크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엔 평균연령보다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나보다 젊고 경력도 짧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훨씬 깊은 내공을 쌓고 있는 복직 실천가들, 시민 활동가들을 보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다.

이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치면서 “일상과 단절된 공간”에서의 이 시간들이 오히려 일상과 더 깊이 연결되어 일상의 활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도전하라.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

권혁철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접수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며칠을 고민했다. 괜히 넣었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붙으면 본전이고 떨어지면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럼에도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다. 붙을지 떨어질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도전을 해야 실패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경험과 경력은 모두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인이 이 과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개월 동안 꾸준히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간결하고 핵심적인 물음에 순간 움찔했다. 면접관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질문을 받고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던 열정이 깨어났다. 기대 할 수 있을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초조했다.

설렘과 기대로 시작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업은 흥미로웠다. 코칭, 전략, 리더십, 캡스톤 등 모든 과목에서 매 시간마다 새로운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좋았다. 그러나 내 일상은 수업 내용과는 달랐다. 수업을 마치고 구미에 도착하면 새벽 1시.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뚱거린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면 다시 아침이다. 6개월 동안 든 차비만으로도 생활에 부담이었지만, 수업을 통해 얻은 만족도가 나머지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충분했다.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다. 이 나이에 무엇이 그렇게 새로웠을까 싶지만 교수님들의 전문성과 열정,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점들과 풍부한 지식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 행복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 해외방문연구조사도 좋은 기회였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기관 운영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가치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과 가치가 한 방향을 향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다름과 다름이 부딪칠 때는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옳음은 개인이 선택할 몫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자산을 축적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교수님들과 강사진들이 특히 그랬다. 이토록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음에 소름이 돋았다. 언젠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날들이 있다는 기대가 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기에 그 마음이 그곳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개월간의 아름다운 동행

김경희

포천분도마을 사무국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이 시작한 지도 6개월이나 지났다. 지나간 시간들을 눈앞에 펼쳐본다. 이곳 포천분도 마을(노인요양시설)에서 하루의 근무가 시작되면 우선 복지넷 홈페이지를 열어보게 된다. 포천은 극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연을 올려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덕분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1기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을 결심한 첫 번째 동기는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인적자원관리, 재무, 회계모금 등의 분야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차나에 다시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원 동기는 비영리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야간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닐 시절 함께 공부하던 중간관리자들과 나눴던 열띤 토론들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못 잊기 때문이다.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함께하는 그러한 열정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다. 30명안에 뽑힌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관문이었고, 그 관문을 통과하자 주어지는 수업 스케줄은 빡빡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6개월 동안 배우겠다는 의지 하나로 2시간30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들으러 가야했다. 건강이 뒷받침해주지를 않았다면 100% 출석 가능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1기의 사전 교육이 시작 되었을 때 설레었고, 어색했고, 미묘한 감정이 교차되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거치고 나서야 한결 수업을 들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 쓰지 않았던 용어들 앞에서 탄 세상에 온 느낌. 다들 스마트폰을 쓰는데 나만 2G폰을 써서 강의평가를 A4용지로 냈던 시간들. 어색했던 시간들이 자연스런 시간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이제는 추억이 될 것 같다. 특히 리더십, 캡스톤 모듈을 통해서도 수평, 수직관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직진이 아니라 한 발짝을 늦출 수 있는 아량도 배웠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와중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배웠다.

캡스톤 프로젝트 팀원과의 유대가 깊어갈수록 다른 1기들과의 교류의 기회가 많지 않았음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모든 것을 풀어 키우는 산이 될 우리의 만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강물처럼 이어져나갈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1기생들이 가진 직책들이 각자의 일터에서는 차세대의 리더로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데 조율해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동행을 보는 듯했다.

마지막 6개월간의 교육과정의 마무리는 해외방문연구조사였다. 7박9일 동안 영국과 파리의 연구조사는 비행기 예약에서부터 모든 것을 챙겨야 했고, 300년이 된 남자수도원에서 숙식까지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방문한 기관들이 보여준 환대에 매우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1기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자면, 아카데미 시작 전 기대했던 것보다 세상을 보는 각도가 훨씬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책임자로서 함께하는 사람과의 보조를 맞추어간다는 사실과 그들의 생각을 한번 일의 관점에서, 사람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rreplaceable한 경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김광현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Irreplaceable

2013년을 맞이하며 결정한 나의 단어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보면서 평소 내가 생각해온 체계적인 NGO 교육이라는 확신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을 담은 전문성 있는 분야를 만들 수 있어 2013년 나의 단어, irreplaceable을 실천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전문성 그리고 고릴라

리더십, 혁신, 경영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교수님들의 강의는 다양한 NGO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수강생들에게 전문성과 함께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카데미 과정 전체에 걸쳐 진행된 캡스톤 프로젝트는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로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하게 하였다. 향후 NGO현장에서 실제사회문제에 해결 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과정에서 본 고릴라 영상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누구보다 주변을 잘 살피는 관리자라 생각했지만 교육에서 직면한 나의 모습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색안경을 낀 관리자였다. 본 교육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색안경’을 벗으려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내가 당면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다른 생각과 선한 영향력

토론의 형태로 진행된 많은 수업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참여자들은 복잡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공유한 시간이 매우 뜻 깊었다. 2박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 단어는 선한 ‘영향력’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비영리분야의 교육 콘텐츠에 현장 경험이 더해져 국내 NGO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 -아산 정주영-’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금 내 주변의 세상은 계절이 바뀌듯 변화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이렇듯 급변하는 현재에 안주하여 세상의 변화에 이끌려간다면 그것은 한 시대 구성원으로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변화를 이끄는 사람. 변화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실전 경험을 배우다

김민아

한국컴패션 마케팅 과장



무엇보다 먼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처음 아카데미에 지원할 때만해도,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얼마나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막상 교육을 시작하고 나니, 체계적인 모듈 구성과 수준 높은 강의 그리고 강사진에 놀랄 수 밖에 없었고 혼자 듣기는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6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사람에게는 익숙지 않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토론 방식의 수업을 경험하며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동료와 직원 분들과도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실제로 일부 배운 내용은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한국컴패션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기관이지만, 주요 업무는 후원자 관리 위주의 업무로 실제 어린이 양육에 대한 부분은 후원을 받고 있는 현지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를 벗어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수업을 통한 다양한 사고를 통해 앞으로 한국 컴패션이 현장에서 뛰게 될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고 정부 정책과 NGO 분야의 변화에 대해 보다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직원 분들이다. Pro-active 한 섬김과 professional한 업무 처리에 감동과 배움이 있었다. 나를 비롯한 우리 기관의 직원 분들도 어디에서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지금 내가 속한 기관에서 많은 직원 분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에 도전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흔히 접할 수 없는 귀한 프로그램인 만큼 기회를 잡아 우리 기관 내 한 명이라도 더 같은 것을 느끼고 공유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키워가길 바란다.



우리사회 희망의 원천인
비영리 활동가들을 위하여

김성태
월드비전 국제사업 본부장

해외연구조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공고를 확인했을 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지원했던 무모함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 무모함으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직장상 개인적인 이유들로 개근과는 거리가 먼 참가자가 되었지만 말이다..)

영국과 독일 비영리단체들의 네트워크와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사회 내 비영리분야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누구보다 앞서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 하지만 기관의 실리 앞에서는 서로를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었다. 아니 누군가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 비난에서 누구보다 나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은 이것이 한국사회 내 비영리분야의 수준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 분야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었다. 그 희망은 소위 말하는 대형 단체도, 한 두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닌 바로 비영리 분야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자신보다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론 밤잠을 새우고 때론 환호하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서조차 주어진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들을 통해 희망이란 그림을 그려본다. 분명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한국사회의 비영리 분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것이다.

다시 한 번 희망의 원천인 비영리분야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꺼이 투자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뜨거운 열정과 공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수영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차장



비영리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나는 비영리와 경영에 대한 최신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리더십, 사회혁신, 비영리 경영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모집공고는 나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혔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합격을 해도 6개월 장기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당초 목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시간만 허비했다고 후회하게 되는 다른 교육과정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정말 다를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큰 행운이었고 좀 더 발전한 나를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1기 동기들이라는 큰 자산을 얻었다.

현재 비영리 분야에는 기존의 생각, 방법, 상식을 벗어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리더십, 전략, 혁신, 재무, 마케팅, 인적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왜’ 라는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관찰’하고,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나를 고민하게 하였다. 지난 6개월은 나에게 새로운 인식과 새삼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저녁 늦게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가끔은 토요일 수업으로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는 불편함과 피곤함이 있었지만 교수님들의 열정, 동기생들의 진지함을 느끼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점이 아닌 다양함이 필요하고 경쟁과 혼자 보다는 융화가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해외연구조사를 통해 현지 비영리 관계자들의 열정과 고민,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사치가 아니라 권리이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문화로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왔던 점과 개인주의적 경쟁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다는 사회 연대의식이 인상 깊었다.

6개월 교육과정을 마치는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그동안 배우고 듣고 느낀 것 모두를 기억하지 못하고 점차 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나름대로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다음날에는 요약집에 기록하기도 했지만 수업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공감까지 기록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재와 기록을 뒤적이며 해결 방안을 찾고, 교수님이나 동기생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며 함께 할 것이므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끝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다.



느낌, 아니까?
 끌림과 여백, 그 사이로!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팀장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이 세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왠지 모를 강한 무게감이 온몸을 휘감았던 지난 여름의 기억이 난다. 비영리 분야 성장 지원과 비영리 분야 차세대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사실에 ‘왜?’라는 물음표가 먼저 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호기심 속에서 나름 촘촘한 모듈별 커리큘럼과 ‘캡스톤 프로젝트’라는 왠지 멋스러운 교수학습법과 조우하게 되니, 잠시나마 잔혹한 업무 현실 앞에서의 인간적 갈등은 있었으나 과감하게 그 끌림의 세계로 저벅저벅 걸어가보기로 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1기 교육생으로 선발이 된 후 포부 동영상 촬영을 할 때 그저 동영상을 빨리 찍고 말아버려야지 하는 알팍한 마음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느낌, 아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포부를 일축해버렸다. 하지만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내가 무슨 느낌을 안다고 감히 세치 혀로 내뱉었을까?’하는 후회가 막심하였다. 시민사회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동기 교육생들을 보면서 그 분들의 지식과 지혜의 축적에 비하면 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 듯하여 움츠러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새 교육을 들으러 오는 시간이 나에게서는 일상 그리고 업무와 분리된 잠시나마 ‘여백’의 시간으로 다가왔다. 특히 시민사회 활동 속에서의 소진현상(burn-out)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여백의 시간은 스스로를 반추해보고, 잠시 머리 속에 새로운 산소를 투입해주는 좋은 동력이 되어주었다.

동종과 이종의 만남, 그 벽을 넘어서...

면접 당일에도 느꼈지만 교육생들이나 교수진들이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민사회섹터에서 종사하는 나로서는 마치 남의 집에 놀러 온 듯한 어색함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을 들으면서 분야가 갖는 체계성과 치밀한 전략 등에 대해 환기하게 되었고, 교육의 인상(Insight)에 대해서 후배 활동가들과 나누면서 지난 활동들을 되새겨보는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지나친 자아성찰’이 갖는 폐단도 있다.

그러나 활동을 위해서는 불가분의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지금 나와 같은 세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함께 나누고 성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뜻을 같이 하는 아들(同志)’이 있다는 것에 무언가 모를 안온함이 느껴졌다.

느낌, 아니까! 이 봄, 다시 ‘봄’을 바라보다.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은 ‘돌(Stone)’ 하나를 머리 위에 이고 가는 듯 힘든 여정이었다. 그래서 ‘캡스톤’은 아니겠지 하는 엉뚱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질적 집단과 이질적 성향을 가진 이들과의 낯선 만남 속에서, 그리고 다소 낯선 교육과정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과정들과 네트워크가 시민사회 전체를 조금이나마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6개월 전 멋모르고 ‘느낌, 아니까’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문장 뒤에 과감히 ‘!(느낌표)’ 하나를 붙여 본다.

비록 교육 일정과 과제의 과부하는 있었으나 교수진뿐만 아니라 동기 교육생들의 삶의 자취와 이야기들을 통해 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조금 더 관조할 수 있는 여백을 찾을 수 있었다. 여백을 통한 바라‘봄’과 마주‘봄’. 이 봄(春)이 새삼 더 반갑다.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탄탄하게 할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된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인생의 변곡점 하나를 또 한번 찍어본다.

‘환기’



김은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교육사업팀장

직장동료들과 지인들이 하나같이 ‘환기’의 중요성을 나를 보고 이야기한다.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 끝까지 한다는 것 그리고 궁금해 하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내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이다.

나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내 일을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 놀라웠고 너무 자랑스러웠다.

함께 해 온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많이 배우고 좋은 자극을 받았다.

교수님과의 열띤 수업, 조원들과의 토론, 이젠 좋은 동기들이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수강생 모두와의 시간이 못내 아쉽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6개월 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지원할 때의 포부였는데, 잘 지켜져서 모두와 함께 수료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간들도 잘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지금 이 뜨거운 열정과 환기로 인해 맑아진 마음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일터 (재)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쏟아내려고 한다.

2기 3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란다.



내 자신의 발전이 이 사회가 잘 되는 것이며,
이 사회의 발전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김종진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팀장

불확실한 미래의 환경 속에서 사회문제를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자신의 능력과 역량 개발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을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의 발전이 조직과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였고 좋은 인연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바쁘신 중에도 늘 교육생들에게 공지 및 사전 연락을 주고 챙겨주는 아카데미 운영팀, 깨끗한 교육장 환경과 시설, 교육생들을 위한 음료와 다과를 챙겨주시는 등의 세심한 배려, 교육 일정의 자세한 설명, 늘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친절한 안내 등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한 이해도 높은 강의로 ‘전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해 주신 김태영 교수님, 논리모형을 알게 해 주신 이봉주 교수님, 인적자원에 대해 알게 해 주신 최재성 교수님, 재무에 대해 알게 해 주신 유영덕 교수님, 모금 홍보에 대해 알게 해 주신 양진욱, 허인정, 김기룡 교수님, 사회혁신 트렌드와 사례를 알게 해 주신 이재열 교수님, 리더십과 코칭에 대해 알게 해 주신 방대욱 교수님과 조현수, 존윤 코치님, 캡스톤이라는 조금은 생소했던 과정에 대해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상범 교수님, 중간 중간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번씩 쏘아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팀 멤버 구정혜, 강성훈, 홍원준, 김광현, 이민정 선생님들께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고 수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싶다. 우리 팀원들 덕분에 사회 투자 금융에 대해 많이 배우고 왔다. (해외 방문 연구 조사를 한 번 더 가게 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을 앞으로 내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 언제나 교육을 마치면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시는 지인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또 다른 성과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 되어갈 때 짬 그 부족한 자신감의 한 구석을 채워주는 기회란 것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게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지역과 업무의 상이함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인연을 맺은 분들과 연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함께 이어나가는 끈을 만드는 것도 나의 능력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움과 설렘, 그리고 희망

노영래

(사)열린북한방송 국장(라디오국)



설렘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의 만남은 기대보다는 일탈이었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다. 30-40대의 현실이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대한 나름의 선물이었다.

북한을 인생의 테마로 삼고, 인생의 반절 가까이를 이런 저런 현장에서 지내왔던 나에게 각계 각층에서 다른 색깔로 하루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몹시도 궁금했다. 그들이 바라고 그리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설렘은 이렇게 출발했다.

전략과 리더십에서 캡스톤까지.

6개월 동안 사람들을 만났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배우며 기업의 입장에서 비영리 분야를 고민할 수 있었다. 모금의 대가 앞에서는 교수님들의 열려있는 마인드에 머리가 숙여졌고, 사회혁신을 통해서는 따뜻한 세상을 그려보고 있었다. 리더십 과정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마음에 거울을 대고 마주서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 캡스톤, 그것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였다. 신념과 아집, 용기와 허세, 질서와 창의, 불신과 의심, 의구심 그리고 과신. 이런 많은 경계들 중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

서른 개의 단체. 모두 다른 활동들.

이 세상에 해야 할 많은 일중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다. 아마 지금이 완성체가 아니라 10년 뒤쯤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6개월이었다.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저기 흩어있는 생각의 조각들을 붙여나가야 할 것 같다. 그간 접어두었던 연구과제도 속 깊게 고민하며 논의해야겠다.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과 그 속에서의 만남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 함께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 만으로도 충분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으로 시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희망을 동반하며 이제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기획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말 안듣는(?)수강생들 드라이브 하느라 수고하신 운영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단단한 디딤돌이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민여진
스마일재단 팀장(사무국장 대행)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왜, NGO에서 근무하게 되었는가?’ 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복지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 소위 착한 일을 하는데 급여를 받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기도 한다.

과연 선한 마음과 열정만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No!’ 이다.

NGO는 목적의식이 공익과 맞닿은 단체일 뿐, 그 치열함은 영리기업 못지않다. 개인적으로 작은 단체일수록 실무자 개개인의 역량은 단체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핵심 요소라고 믿고 있다. 사회에서 NGO 역할의 중요성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NGO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는 순간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흔히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6개월간 진행되었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훌륭한 강사진 및 동기 수강생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되새겨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몸의 피로함을 압도할 만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 내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다만 상당한 내공과 열정이 가득한 30명의 아카데미 동기 수강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좀 더 현장감 있는 다양한 NGO를 경험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6개월의 과정만으로 NGO 실무자로서의 역량이 한 순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배우고 느꼈던 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지, 착실하게 실천해 가는지가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과제인 듯하다.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몸 담고 있는 단체가 추구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발 나아가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아산 프론티어 1기를 보내고 나며

박병혁

(재)아름다운가게 정책국장



시간이 빠르다. 벌써 봄이다.

면접을 보느라 평소에 입지도 않던 10년된 양복을 꺼내 입고 면접장소로 향했다. 카메라 앞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던 어색함이 기억나고, 면접 교수님들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하며 합격되기만을 기다리던 애절함도 기억난다.

합격 통보 이후 받은 첫 번째 메일은 오리엔테이션을 안내하는 메일이었다. 보통 첫 만남에서는 서로 인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뭔가 해오라는 메시지가 왔다. 첫 만남부터 과제를 준다. 스무 개가 넘는 에피소드 중 하나를 골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지령’이었다. 007요원 뽑나? 신입생도 아니고 다들 마흔 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고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라고? 뽑아 준 것은 감사할 따름이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런 걸 ‘아산답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나이와 지위 상관없이 신입생이었던 것이다.

첫날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무림의 교수들이 모이는 시간, 나름대로 준비해간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오랜 만에 타인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자니 새로웠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즐거움도 잠시 일주일 만에 1회에서 2회 교육이 진행되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떠나 과제도 넘쳐났다. 평일 업무로 인해 과제를 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에 수강생들에게 많은 과제는 고비였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과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학습할 수 있을 것이기에 성장의 한 꼭지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 7년차 이상의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다. 그들이 대부분 비영리 단체의 상위레벨에 있으면서 아래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해결 요구들을 직면하고있기 때문이다. 캡스톤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방법을 접하게 된것은 매우 유익했고, 매우 신선했으며 많은 해법들을 얻게 되었다.

또한 리더십 코칭을 통해 들어준다는 것, 경청 후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뒤 이은 1:1 코칭에서도 잠시 업무공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 내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게 되었다.

학습을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리 수강생들의 갖고 있는 기본 지식이 서로 다르고 업무환경이 다르다 보니 원론적인 강의에서는 흥미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우리가 1기인 만큼 앞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웠던 모든 것들도 후배들을 위한 나눔이라 자부한다. 역사는 쇠퇴하지 않고 진보한다.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성장할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배포 큰 교육 기회 제공은 비영리단체의 종사자에게 새로운 성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우뚝 설 것이다.

해외 연수 기간 중, 우리는 ‘아산 감사합니다’로 식사를 시작하곤 했다.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시작 하였고, 이 시작은 향후 비영리 기관의 큰 자양분으로 남게 될 것이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처럼, 아산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참 감사하다.



대전에서 서울로 6개월 대장정

박수진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팀장

대전에서 서울, 가깝고도 먼 거리, 다행히 KTX라는 교통수단은 대전에서 서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켜주었다. 사실 지방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면접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데, 역시나 면접관님들은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우선이었다. 그땐 아무런 생각 없이 “네! 당연하지요” 라고 답했는데, 내가 중사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배려가 가능했기에 당당히 답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 후 시작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주1회 서울을 왕복하는 것은 몸도 마음도 피곤한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개인적인 지출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기차 속에서는 업무와 일상을 잠시 떠나 휴식을 느끼는, 휴(休)의 시간이었다. 올라가는 기차에서는 못다한 업무를 정리하고, 내려오는 기차에서는 오늘의 기차 값은 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며 단 한 줄이라도 하루의 교육을 정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점차 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교육도 익숙해지면서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배려와 관심이었다. 멀리서 온다고 걱정해주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다.

기대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값진 시간들

교육담당자로서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 큰 매력을 느꼈고 강사진에 큰 기대감을 가졌다. 매시간 진행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협회로 돌아와 직원들과 나누면서, 수업이 정리되고 생각은 깊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무엇보다 항상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교육생의 입장이 되어보니, 본 업무하고 연결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었다. 조금 더 시간이 충분했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과 더 좋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만큼 함께하는 선생님들과의 지식 공유에서 교육 외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아카데미에 참여자들의 특권이 아닌가 싶다.

6개월의 시간이 나에게 준 변화

반년이란 시간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하면서 나는 환경을 탓하기 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때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데 후속으로 리모트코칭을 하면서 개인과 조직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코치와 함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직을 생각하며 더불어 내면을 바라보는 너무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물론 그것은 리모트 코칭만으로 이뤄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커리큘럼 진행상 리더십, 조직에 대한 교육, 혁신 등 여러가지 요소가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다.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면서,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6개월동안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얻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함의 시간을 뒤로하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는 것 같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많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해야 할지, 우리 조의 캡스톤 프로젝트 The Bridge를 만드는데 일손을 도와야할지, 생각만으로도 참 행복한 상상이다. 우선 배운 것을 현장에서 잘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시간에 쫓겨 머리 속에 넣기만 했던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조금씩 꺼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중히 나눠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나만의 자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나의 약속이자 도전이지 않나 생각한다.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너무 고맙습니다.

소중한 경험과 소중한 인연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제 와서 돌아보면 참 긴 시간을 잘도 버텼다는 생각이 든다. 매주 수요일마다, 곧잘 토요일까지, 심지어 때로는 한 주에 세 번까지도 수업을 위해 업무 및 사생활에서의 급한 일들을 다 팽개쳐두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로 달려가야 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수시로 부과되는 리딩 자료와 한숨 돌릴까 싶으면 어느새 닥쳐오는 과제 마감시간의 압박. 간혹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고 나면 어느새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게 접근해가는 출석률 통보 메일이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어쩌면 오히려 수업시간이 더 편하다 싶을 만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6개월은 투잡 인생을 방불케 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는 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수업을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캡스톤과 리더십과 사회혁신, 전략, 인사와 회계, 마케팅 수업들을 거치면서 여러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수업이 반드시 다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비영리 영역에 종사했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평이한 수업들도 없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나에게서는 지난 6개월이 비영리 단체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심화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업보다 더욱 소중한 경험은 따로 있었다. 그 6개월간 동안 나는 여러 비영리 영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각을 나누고 다른 분야, 다른 단체, 다른 경험을 가진 분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한 영역에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만나왔던 나로서는 그 교류와 이해의 기회야말로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사회복지와 국제개발, 사회적 경제 영역은 물론 심지어는 대북 방송에 종사하는 분까지 향후 비영리 영역의 주역이 되실 훌륭한 동기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내 안에 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을 털어내고 겸손한 자세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분야와 생각의 방향은 조금씩 달랐어도, 더 좋은, 더 인간다운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진정성과 고민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런 상호 교류와 이해야말로 각자의 사상과 영역의 논리를 넘어 혁신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아닐까.

한 단체에서만 올 해로 14년차. 이제 내게도 지금 단체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할 시기가 향후 2~3년 안에 찾아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의 나를 완성하고 한 차원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준비의 첫 걸음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지난 6개월간의 수업 및 캡스톤, 해외연수에서의 경험, 그리고 동료들, 교수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래의 나에 대한 자신감, 미래 내가 하려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얻을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기였다.

이 같은 기회를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 시간 우리와 함께해주었던, 우리 이상으로 긴 시간을 준비와 마무리에 헌신해주셨던 스태프 여러분의 노고와 마음 씀씀이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동고동락했던 캡스톤 담당 김상범 교수님께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변화의 시작

박찬욱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사무처장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만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꽤 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최종 해외조사연구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다. 지난 주, 이번 주가 지나고 나니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업이 없다는 것이 꽤 허전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 동안 여러 주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했지만 막상 누군가 어떤 과목이 인상 깊었는지 물어본다면 “딱 이거다!” 하고 얘기해줄 만한 과목이 바로 생각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수를 시작하기 전인 6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져있다는 것이다. 그전에 비해서 업무능력이 팔목상대하게 향상되었거나, 분야의 전문지식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보다는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나의 생각과 자세에 변화가 생긴 듯 하다.

그러한 변화의 프로세스가 어떠한다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자세, 내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질 수 있고, 이런 접근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이 형성된 것은 교육과정의 특정과목 아니 특정 강사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기 보다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여러 과목들, 같이 6개월의 교육과정 기간을 함께한 1기 동기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항상 친절하고 살갑게 지원해주신 관계자 분들, 담당교수님들과의 만남과 부대낌 속에서 조금씩 내 삶과 생각 그리고 자세에 영향을 준 듯하다.

공식적인 아카데미의 정규 프로그램은 끝이 났고, 나의 생각과 자세에는 변화가 생기려 하지만 내가 일하는 곳의 쉽지 않은 상황은 아직 그대로이다. 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속에서 이러한 감사한 변화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즐겁게 여러가지 고민들과 노력을 해갈 것이고, 그 노력 속에서 나의 삶이 더 치열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갈 것을 믿는다.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익힌 6개월,
더 넓고 깊은 세계에 고개를 드밀고 있는 듯

송경옥

구로구공동희망학교 시설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 면접일, 이재열 교수님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하였고, 다 늦은 나이에 왜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나는 “인생의 큰 전환기에 놓여있는 지금 (이제 막 사회복지시설을 새로이 설립한 직후였기에) 제게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멘토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태영 교수님은 말없는 눈빛으로 나의 간절함을 듣고 계시는 듯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멘토를 만났다.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 모두가 멘토였다. 각 분야에서 이미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라는 것 이상으로 그 열정과 헌신,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 우리 사회의 그나마의 건강성은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확신에 가슴이 벅찼다. 남들이 뭐라 해도 각각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에 마음을 내는 그것, 그것이 나의 오만, 나의 자만을 자각시키는 멘토였다.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을 내어 조금 더 함께 하는 사회, 열린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던져주는 질문이 나의 멘토였다.

전략 수업을 들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나마 비자본주의적 삶의 지향을 구현해 내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착각을 송두리째 걷어내었다. 나의 심각한 고정관념을 걷어내니 이후 교육과정에 대해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수업에서 들은 것과 공감되는 것, 생각해 볼 것 등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전달한 것도 많았다. 새로이 설립된 시설에서 느끼는 문제와 내 감정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직원들과 나누며 우리 시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실천적 해답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나의 오랜 습관인 직관적 진단과 대응, 빠른 문제해결 속도 등의 방식을 보다 더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에서 보완해 가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캡스톤 과정을 담당하셨던 김상범 교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정말 가슴을 수도 없이 울렸다.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축출되고, 너무 느리면 게으름이 되니 주변 환경 변화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속도에 균형을 맞추어 가며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났다. 얼마나 큰 애정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

모든 수업을 진행해주신 교수님들 어느 한 분도 소홀함이 없는 강의를 해주셨다.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은 깊고 넓으나 어렵지 않고, 내 삶에 울림을 주어 바로 적용할 수 있었고, 마음을 열어, 몸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한 발 더 깊고 너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며 생각하게 되었다.

이 6개월을 통해 얻은 것 정말 많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수님, 동기들, 운영팀 그리고 해외연수 중 만났던 외국의 기관 종사자들까지. 모두에게 이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말, 사소한 몸짓일 수 있겠으나 그것들이 살만한 세상,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전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 중 많은 과제와 빡빡한 일정은 고단하였지만 충분히 투자할만한 시간과 노력이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채울수 있었던 6개월

양연수

연세의료원 안과학교실

지난 6개월은 참으로 특별한 시간이었다. 지식을 채우기 위해 지원하게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였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인성과 마음까지도 채우게 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경영”과 “전략”이라는 교육에 끌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사업 파급성을 실현하고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정신이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을 들으면서 그동안 조각나있던 퍼즐들을 하나로 맞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관의 비전과 운영철학, 운영방침에 대해 공유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기관에 갖는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중·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기관의 운영에 급급하여 기관의 비전과 운영철학, 운영방침 등을 무시하거나 뒤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다수가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접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중간관리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리더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29명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 5명과는 좀 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했고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기관분들 역시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비영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양제를 맞는 것과 같다.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하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확실하게 된 것들과 새롭게 얻은 힘으로 더욱 열심히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아마도 따뜻한 마음의 나눔 때문일 것이다. 함께 이기에 행복하고 마음을 나누기에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에게 힘이 되어준 동반자

오영수

밸류가든 대표



10여 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은 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가을 시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 과정에 격려가 되고,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동반자였다.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하게 된 3가지 출발점이 있었다.

첫째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형태의 조직이 미션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NGO에서 적지 않은 기간 일을 하였지만, 이제 내 일을 직접 펼치려다 보니 경영의 마인드나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립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캡스톤 프로젝트의 오리엔테이션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를 위해 기획된 수업 같았다. 마치 대학원 한 학기 수업을 압축시켜 놓은 듯한 전략 모듈의 수업은 부족했던 지식을 충족시켜 주었다. 두 분 선생님들이 수업에 임하는 열정적인 모습, 사람 좋은 웃음은 정말 고맙고, 오래 간직하고 싶다.

둘째는 정말 괜찮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욕구였다. 연차나 직위가 주는 리더십이 아닌 포용하고 소통할 줄 아는 리더십, 필요할 때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십을 익히고 싶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에서 나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코칭을 받고 싶었다. 실제 창업의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고, 조직을 벗어난 나의 실체는 부족하기 그지 없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한없이 위축되려는 순간, 매달 진행 되는 1대1 코칭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었다. (꽤나 민망한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준 코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인적관리 모듈은 조직의 역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리더십 모듈은 셀프코칭의 지침을 얻은 느낌이었다.

셋째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 사회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혁신적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며,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마다 준비된 사회혁신 수업은 사회변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소셜픽션워크샵’, ‘인간중심 디자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이 기억에 남는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은 사회혁신이란 번뜩이는 하나의 아이디어 뿐만이 아니라 발견의 과정 또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 좀 더 고무되기도 했다.

누군가 지난 해 가장 잘 한 선택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매주 정성껏 준비된 교육, 전문가들의 열정 어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선택 받은 느낌이 든 시간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두 가지를 더 얻은 것 같다. 하나는 바로 동기들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끝이 났지만 비슷한 고민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1기 동기들이 곁에 남아 있어 뭔가 든든하고 끈끈하다. 다른 하나는, 숙제(?)가 남았다. 6개월의 변화를 겪고 나는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성장된 모습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숙제이다.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뿌듯하게 만들어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2013년 가을은 사회 생활 13년만에 진로를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영리 기관에서 그것도 탈북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13년을 일해 온 나로서는 서서히 드러나는 밀천 때문에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 탈북청소년 문제는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통일문제와 직결되는 주제였고, 다문화청소년 문제 역시 사회통합, 다문화감수성 등 확장되는 주제가 무궁무진했기 때문에 지식의 빈곤함, 성찰의 부족으로 늘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알팍한 경험으로 버티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알게 된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드라마틱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면서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려 했던 내게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대학원 진학을 유보할 만큼 매력적이었다.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던 마음을 뒤로 미루고,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다.

7년차 이상의 비영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니 어떤 사람들이 올지 기대도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이 프로그램의 구성과 같이 탈북·다문화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비영리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좋은 예를 직접 참여해 보고 이를 통해 나의 업무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마치 가뭄 뒤에 찾아온 단비와도 같았다. 좀 더 성스럽게 표현하자면 ‘한 줄기의 빛(?)’과 같았다.

그래서 다짐한 것 하나, 이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절대로! 단 한번도 교육 과정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이었다. 물론 그 외에도 1기 교육생 모두와 친해지리라, 교육 내용을 내가 일하는 현장에 적절하게 반영해 보리라 와 같은 다짐도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만은 지켰다. 이는 단순히 6개월 동안 한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자기 스케줄 관리를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내게는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이다. 특히, 아카데미 시작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연말과 연초에는 정신이 없었다. 우리 기관의 직원들 중에서는 이 바쁜 와중에 교육은 챙기고, 자기들은 야근을 한다고 불멘 소리를 하기도 했고, 결국 나 또한 아카데미 수업을 위해 연말에는 직원들과 야근을 일상화해야 했다. 따지고 보면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에 아카데미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기관의 직원들 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감동했던 점을 밝히고 싶다. 놀랐던 점은 그동안 보았던 양성 프로그램은 각각의 강의를 연결된 정도이며,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 과정의 평가가 달라졌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모듈별로 강의를 구성되어 있고 캡스톤 프로젝트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강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엄청난 기획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감동했던 점은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교육생으로서 정중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교재 준비에서부터 도시락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준 여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동받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생’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대우를 해 주셔서 더욱 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가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뿌듯하게 만들어 준 그 무엇이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더 멋진 모습의 NGO활동가가 될 우리의 모습을 그리며

이민정

JA Korea 팀장



어떤 만남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더 큰 꿈을 생각하게 한다.

다양한 NGO에서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들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NGO활동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세상 많은 분들이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세상을 더 넓게 멀리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마음의 계기가 되었다.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상의 NGO를 설립해보는 캡스톤 프로젝트는 NGO와 사회를 다시금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었다.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6명의 소속이 다른 NGO활동가들이 ‘Social Credit’ 이라는 NGO를 설립하고자 다각도로 논의하며 준비했던 긴 시간은 아카데미 교육과정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며 우리가 뜻을 모아 세상에 도움되는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사회혁신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NGO가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관을 설립하자’라는 ‘Social Credit’ 팀의 비전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의 본질,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과 사업모델 구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구조화시키는 일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NGO가상설립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분야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각각의 능력이 조화롭게 구조화 될 수 있음을 체험했고, 각각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논의의 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다.

6개월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서 요즘 이 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NGO가 있어야 할까? 어떠한 구조화된 사회연계 시스템을 가져야 할까?’를 계속 떠올리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사람을 성장하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나는 밀도 높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조금 더 세월이 흘렀을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의 NGO활동가로 일하고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가져다준 변화

임주현

사회복지법인 위캔센터 사무국장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할 때 국내교육 보다는 해외방문연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을 들으며 해외연수는 하나의 과정일 뿐 아산나눔재단에서 왜 비영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내가 왜 이 교육을 들어야만 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무척이나 좋았다. 매주 1회 혹은 2~3회를 참가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캡스톤 과제를 풀어가며 6개월의 시간을 매우 알차게 보낸 것 같다.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니 그 6개월 동안의 과정이 무척이나 짧게 느껴진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몇 가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내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수강생이라는 자부심이다. 전국의 수많은 비영리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과의 경쟁을 통해 뽑혔고, 체계화된 국내 교육과 해외방문연수라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다. 이는 특히 내가 그동안 힘들어하던 비영리 분야 종사자로서의 “동기 부여”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그 동안 실무위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 업무를 진행해 왔었다면,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수준 높은 교육 내용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업무에 접목을 시켜보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평가시 업무에 있어서 직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캡스톤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문제해결방식의 접근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져 대표님 (원장수녀님)과 직원들에게 수업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 것이 본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고객 (장애인,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자신감이 생겼으며 센터 직원들에게는 최고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추가되었다. 그로 인해 직원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기대하던 바를 일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당장의 변화를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앞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정보를 얻고 타 기관의 선생님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대 이상으로 충족되지 않았나 싶다.

이제 6개월간의 수업내용 정리를 통해 다시 한번 지난 수업의 내용을 되새기고 실무현장에서 잘 적용해 보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본 교육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교육 과정의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장애인복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회복의 시간이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임진기

월드휴먼브리지 사무국장



지난 6개월간 과정을 표현하자면.. 참 행복했다.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졌다.
반성했고,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

한국의 NGO 현실은 사실 구심점이 없이 각개전투식이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다. 한국사회와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간 깊은 교류도 없었고, 경쟁하기에 바빴고 그래서인지 오히려 NGO의 현실은 일반 세상보다 더 각박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 NGO의 역량은 들쭉날쭉이고 어떠한 통합된 체계성이나 이론적 베이스가 약하다보니 각자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얻게 된 경험으로 인해 지금까지 NGO의 역량이 자라온 것 같다. 시대와 환경의 흐름이 운 좋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늘 배가 고프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목이 말랐다. 아주 갈증이 많았다.

이게 맞는 것인지, 단체가 이렇게 성장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메마른 사막의 땅과 같이 갈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그리고 1기 수강생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갈증이 깊어진 몸에 물이 넘어가는 순간, 물방울 하나 하나의 떨어짐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과정과 시간은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았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NGO를 위한 강의와 과정들은 많다. 그러나 늘 아쉬웠고 늘 채워지지 못한 허전함이 있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나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6개월간 진행된 수업 전 과정은 그간의 어지럽게 널려있던 경험적 퍼즐을 정리하고 맞추며, 그 경험이 이론적으로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되어서 너무나 좋았다. 특히 수업의 난이도가 높고, 깊이가 깊으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스스로가 각자의 환경 속에서 찾게 하는 과정이 매우 좋았다. 좋은 것을 넘어서 정말 재미가 있었다. 동시 깊은 이론적 접근이면서도 실제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기관으로 돌아가 배운 수업 내용을 직원들에게 바로 강의하며 조직에 적용하고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수업의 구성도 좋았지만, 수강생들이 교육과 이러한 동기부여에 목말라 있는 7년차 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중간 리더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이렇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NGO간의, 특히 향후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영역의 중간 리더들을 함께 만날 수 있게된 것 도 매우 감사하다. 사실 비슷한 성향의 NGO들이 오랜 시간 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이질적인 성격의 기관들과 만나서 서로 공감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마음과 시간과 추억을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

너무나도 좋은, 행복한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를 다시 찾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

전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장

한국인 평균 수명 80대 그 남은 반절을 준비하기 위한 고민의 한 걸음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작이었지만 많은 분량의 교육과 업무 상황의 혼란스러움은 피곤함과 겹쳐 충분한 시간투입, 집중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친 상황들은 어렵게 찾아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시간들 속에서 위안과 충전으로 채워졌고, 생활화된 시간들은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의 빈 시간을 어색하게 한다.

교육에 의한 지식의 축적, 같은 길을 가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의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의미는 그동안 쉽 없이 달리느라 잊었던 ‘나’에 대한 되찾음이었다.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단어들, 잊고 있던 감성들, 즐겨 읽던 책, 즐겨하던 여행지, 친구들과의 수다, 가족들과 소주 한잔, 그리고 ‘내 일을 참 좋아하고 있구나’에 대한 새삼 깨달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거창한 계획과 구체적인 스케줄표 보다 오롯이 ‘나’로서 앞날을 맞이하고 기꺼이 즐길 수 있는 ‘나’를 다시 찾을 수, 만날 수 있게 해 준 감사한 시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미래의 나를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었으나
잊었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다질 수 있었던 시간.

일상의 익숙함이 지루함이 아닌 날마다의 감사로 새로워질 수 있으리란 기대 속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보다 나은 내일, 오늘 보다 나은 ‘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어 본다.

변화와 성장의 시간

채향지

들꽃청소년세상 관악교육복지센터장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길어지고 일 년은 빨라진다더니 벌써 6개월의 교육과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에 새삼스레 시간을 탓해보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 더 많은 비영리 기관의 분들과 만나고 네트워킹 하고 싶어 시작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중간 중간 힘겹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6개월을 아쉬워할게 아니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만들어 준 이 소중한 시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새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다.

아마 6개월이 과정 속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수강생이었기에 후회도 되고 아쉬운 마음도 더 큰 것이겠지?

하지만 오늘 내가 만난 어떤 분이 공교롭게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고, 걱정하는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다. 현재에 사는 사람은 후회도, 걱정도 없이 만족만 한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지금 현재 나에게 “만족”이다.

아니, “대만족”이라고 해야겠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만난 29명의 존경할 만한 리더들과 아산나눔재단의 실무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런 귀한 만남의 고리가 되어준 이 6개월의 과정은 나에게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 시간이었고,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다방면에서의 고민을 할 수 있어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교수님들의 열정과, 그에 못지않은 아산나눔재단 선생님들의 열정에 감동했고, 감사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이 아름답게 지속되기를 바라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기여하고 싶다.



미래 그리고 기회 vs 위기

최수진

태화복지재단 전략기획과 과장

The future is here
It is just not widely distributed yet, – William Gibson –

미래가 오고 있다. 아니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서’에 한 구절처럼 미래는 지금 여기 와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필연적으로 현재에 살면서 공존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10년째 비영리 기관의 연구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몸담고 있는 조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환경변화를 예측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고 여러 논문이나 전문서적과 씨름하며 지낸 날들이 스쳐 지나간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조직 내외를 분석하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내는 짜릿한 순간을 경험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조직의 미래를 내다보며 조직 내의 일부 성과만을 자축하고 마는 것이 과연 사회복지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나의 비전과 일치되는 것인가? 사회복지 미래에 적합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리더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많은 고민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

소속되어있는 조직을 넘어 사회복지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동기로 시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통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자세 그리고 전문 지식과 스킬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 특히 자기성찰과 인식을 기본으로 우리 팀만이 아닌 타 팀과의 하모니를 중시 하는 리더십과 사회복지계를 넘어선 제3섹터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경영전략, 재무·회계, 모금·마케팅, 사회혁신 등 조직경영 스킬에 대한 배움은 내 자신을 준비된 리더로서 한 뼘 성장할 수 있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며

자랑스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생으로서 그 동안의 값진 경험과 열정으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향후 개인적인 성장만이 아닌 조직과 사회복지계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하며 후기를 마무리 하려한다.

큰 배움을 주신 정진홍 이사장님, 박태규 교수님, 김태영 교수님, 이봉주 교수님, 최재성 교수님, 문형구 교수님, 김영규 교수님, 유영덕 교수님, 백승철 교수님, 양진옥 교수님, 허인정 교수님, 김기룡 교수님, 이재열 교수님, 이원재 교수님, 조영복 교수님, 정지훈 교수님, 송인혁 교수님, 김현대 교수님, 방대욱 교수님, 조현수 코치님, 윤형석 코치님, 김상범 교수님, 이승복 팀장님, 강해진 매니저님, 최지훈 매니저님, 정다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식을 나누며 성장한 ‘The Bridge’의 박병혁, 박준우, 김성태, 김유리, 박수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내 인생의 2막

홍원준

조선경제 | 팀장



6개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2월까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내 일상을 꼭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매년 새로운 이슈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다. 끊임없는 호기심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듣기도 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 하고 있던 차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마치 나에게 ‘이건 너를 위한 교육이야. 절대 놓치면 안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다행히도 서류전형은 통과되었으나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은 무척이나 컸었다. 그러나 비영리기관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게다가 초기에는 월요일 저녁까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 5시전에 나오는데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했다. 1시간 일찍 퇴근 하는 것이 이미 어려울 줄이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것이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기에 드러나지 않도록 업무와 시간을 조정하면서 독립운동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투잡, 쓰리잡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졌었다. 교육이 진행되며 실습도 많고 과제는 또 왜이리 많은지, 생소한 캡스톤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낯선 양식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적으려고 하니 끊었던 담배 생각이 날 정도로 머리에 쥐가 나기도 했다.

2013년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다. 심적으로도 많이 외로웠고, 일에 완벽성을 기하다 보니 열정을 넘어 집착처럼 예민해졌다. 자연스럽게 친한 동료와 후배들과 다툼도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연초에 시작한 운동도 단기적인 진통제일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수업인 리더십 모듈은 나에게 엄청난 자극이 되었다. 비영리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것을 깨닫고 배운 것을 실천해보는 것 그리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리더십 모듈이 끝난 후 1대1 코칭을 받으며 개인적인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다시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캡스톤도, 나오는 전혀 상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재무회계도,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매주 새로운 것을 들으며, 개인적인 것과 일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었다.

교육을 들으며 가장 달라진 점은 잊고 있었던 적극적인 마인드를 찾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항상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변분들과 이야기할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자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 기회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가장 감사한 것은 교육받는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 동안 참 많은 것을 받았고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아산나눔재단이 우리에게 베푼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도와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들으며 내 인생의 2막은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어떤 인연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는 것이 즐거운 요즘이다.



ASAN
FRONTIER
ACADEMY







THE ASAN NANUM FOUNDATION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첫 번째로 수료하시는
여러분께 올립니다.
”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이봉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원장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인간의 삶 속에는 멋진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때와 자리를 들어 전해주는 이야기를 ‘역사’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에 들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억에 스미어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와 자리도 분명하지 않고,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일의 주역도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 변두리 이야기로 내 몰려 이른바 ‘허구’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역사에 담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아예 ‘역사이전’의 ‘유치한 흔적’으로 여겨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신화’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이전보다 겸손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더 현명해져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는 신화가 아득한 옛날이야기만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지금도 새로 지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 하면서 그 옛날의 범주를 든 유치한 흔적을 되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신화는 역사가 쓴 시대!’ 그러한 신화 한 토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달자면 ‘외팔이 신 티르 이야기’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북구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늑대 펜리르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신들은 펜리르를 그대로 세상에 두면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펜리르를 어떻게 잡아 묶느냐 하는 것입니다. 워낙 분방하고 사납고 교약한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는 모두 짐작합니다.

신들은 펜리르를 묶을 밧줄을 마련하여 두어 번 묶어 보았지만 그 녀석의 이빨이 번번이 줄을 끊어버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난장이들을 시켜 주술 밧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은 마치 비단 줄 같이 보였지만 실은 여섯 가닥의 줄, 곧 고양이 발소리, 여인의 수염, 산(山)의 뿌리, 꿈의 감성(感性), 물고기의 숨(呼吸), 새의 침(唾液)을 꼬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합니다. 욕망을 묶을 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죠.

신들이 이 비단 같은 끈을 가지고 펜리르에 다가가자 그 녀석은 이제는 속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녀석은 그 밧줄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이지 않겠다면 그 끈을 내가 가지는 동안 신들 중의 하나가 내 입에 손을 넣고 있어야.” 아무리 신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탁을 선뜻 들어줄 신은 흔치 않습니다. 뻔한 일입니다. 우리 다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신들 중의 하나인 티르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늑대의 입에 자기 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펜리르가 입을 벌리는 순간 신들은 몰려가 그 녀석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술 밧줄로 꿰꿰 묶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무자비하게 티르의 팔을 물어 끊었습니다.

탐욕은 마침내 포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팔이 신의 탄생’과 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티르의 운명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티르는 세계의 종말이 왔을 때, 지옥의 늑대 가름과 한 손만으로 싸우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욕망을 책임지고 새로운 신의 탄생을 위해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고 어쭙잡은 주석을 달아도 괜찮을는지요.

오늘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떠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가 쓴 시, ‘외팔이 신 티르 이야기’를 읽고 싶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봉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원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먼저 6개월간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하게 되는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 수료생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항상 미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도 여러분과 함께 그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께는 과정을 수료했다는 표현보다는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표현이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다원화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는 비영리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분야의 역량이 한 사회의 역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영리 분야의 역량은 결국 사람의 역량이 좌우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나라 비영리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비영리 분야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영리 분야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책무성은 비영리 분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가치와 원칙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두 발은 현장에 굳게 두되 시야는 전 지구를 향하십시오. 글로벌한 시각을 키우십시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무대로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활동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 사고를 키우십시오. 비영리분야야말로 혁신적 사고와 실천이 중요하고 또 가능한 곳입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되 혁신을 통한 창조와 미래를 지향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 수료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www.asan-nanum.org/frontier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